

바디퍼커션의 음악수업 활용 Utilizing Body-Percussion in Music Class

이 현 수*

Hyun-Su Lee

초록 본 연구는 신체를 기반으로 한 바디퍼커션 기법을 음악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시작되었다. 연구 결과 바디퍼커션은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다. 수업의 도입 단계에서 멜로디를 바디퍼커션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다. 손바닥과 같은 작은 소리를 약 개념으로, 점프 같은 큰 소리를 강 개념으로 활용가능하다. 소음이나 성격 같은 추상적인 주제도 포함할 수 있다. 대중음악의 반주를 할 수 있다. 론도 형식을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기호화하기 애매한 소리들을 교실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활용가능하다.

주제어: 바디퍼커션, 음악교육, 신체 표현, 신체 활용, 바디 사운드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method that can be used in various forms by applying body-percussion to students in music class. As a result, body-percussion can be used the melody transformed into a body-percussion at the beginning of the class. Body-percussion can use a small body sound like a small concept and a loud sound as a strong concept. Also include abstractive subjects such as noise or personality. Body-percussion can accompany popular music and apply rondo form. Additionally, it improvises sounds that ambiguous to symbolize according to classroom conditions.

Key words: body-percussion, music education, body expression, physical application, body sound

* Corresponding author, E-mail: hyunsu2507@naver.com

Instructor, Inje University, 197 Inge-ro Gimhae-si Gyeongsangnam-do, Korea

I. 서론

일반교육에서 음악을 가르치기 시작한 이후 학계에서는 기존의 접근을 벗어나 좀 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보자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기존의 음악활동이나 수업방식의 전통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흥미나 관심을 고려하면서 음악성이나 음악적인 수준을 배려하여 음악수업에 활용할 때 음악교육은 성장한다(Kim, 2003). 교사와 학생이 함께 음악활동을 체험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음악 기술의 습득과 동시에 음악에 대한 이해에 가까이 접근하고 음악 하는 즐거움을 계발하기 위하여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한 직접적인 음악 수업이 주요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Choi, 2008).

음악활동은 학생들이 음악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활동이다. 그렇다면 교육 현장에서 다양한 표현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황명자(2015)는 교사들은 수업에서 표현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제반 지식, 현장 경험, 학습 자료 부족들의 이유로 효과적인 수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Yun, 2020).

아직도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 학습의 공간에서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음표를 읽고 쓰며 익히는 전통적인 음악 학습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 중 교사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활동하며 새로운 변화를 주는 수업을 맞보고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Choi, 2008). 새로운 방식으로 음악을 경험하게 해주기 위한 노력은 항상 필요하다.

음악 경험에 있어서 신체의 사용은 중요하다. 이와 같은 주장은 신체의 모든 부분을 감각 기관으로 보고 음악적 생각이나 느낌이 신체를 통해서 표현될 때 효과가 증대된다고 주장했던 달크로즈(E. J. Dalcroze, 1865~1950)를 비롯한 20세기의 음악교육자들에게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몸짓은 하나의 언어가 되고 이것을 통한 소통은 비유적 표현, 공감 능력, 의사 표현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동체의식을 준다(Park, 2001; Yun, 2020).

몸타라고도 불리는 바디퍼커션은 몸을 타악기처럼 두드리며 악기와 같이 활용하는 활동이다. 몸을 두드리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활동이다. 또한 바디퍼커션 활동을 함으로써 음악적으로는 박자 감각을 기르고 리듬 표현 능력을 신장시키고 동시에 두드리는 본능적인 활동이 심리적 안정감과 해방을 가져다준다(Yun, 2020). 바디퍼커션은 신체활동을 본질임과 동시에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체육이나 무용과 같은 교과와 융합 수업을 계획할 때도 용이한 측면이 있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바디퍼커션을 음악수업에 주요하게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바디퍼커션을 활용한 음악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2015년 음악과 교육 과정 공통의 내용 체계에서는 표현, 감상, 생활화의 세 영역으로 나누었는데 표현의 핵심개념은 ‘소리의 상호작용’, ‘음악의 표현 방법’으로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소리의 상호 작용과 음악의 표현 방법을 이해하여 노래, 연주, 음악 만들기, 신체표현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명시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2015). 이것은 소리 이해를 위한 총체적 음악 경험에서 신체의 주체적 활용 가능성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지역이나 문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몸을 흔들고 발로 박자를 맞추는 신체적 소리 표현은 어쩌면 인간의 공통적인 표현 양식이다(Jang, 2008). 주어지는 현상을 소리로 환원하기 위하여 인식의 주체인 신체로 소리 내고 표현하는 과정은 음악경험의 중요한 본질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음악적 경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바디퍼커션을 배경, 기능 및 사용 방법을 알아보고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바디퍼커션의 정의

바디(body)는 신체, 퍼커션(percussion)은 모든 타악기를 칭하는 말로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것이 바디퍼커션(body-percussion)이다. 바디퍼커션은 몸을 타악기처럼 사용하여 연주할 수 있다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신체를 두드린다는 의미로 몸타라고 부르기도 한다. 열정적으로 두드림을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디퍼커션은 음악적 효용성을 나타낸다(Filz, 2014, p. 3). 부로우스(M. Burrows)는 바디퍼커션이 몸을 타악기로 사용하는 음악표현의 방식을 사용하여 소리를 내는 신체적 표현활동으로 아프리카의 여러 민족들의 전통음악을 연주할 때 신체를 두드리며 리듬을 연주하는 형식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한다(Yun, 2020; Kim, 2018에서 재인용).

바디퍼커션에는 입을 통해서 나는 소리도 포함된다. 입에서 나는 소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소리든지 모방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영역으로 분류되기도 한다(Seo, 2018). 신체의 모든 부분을 사용하여 다양한 유형의 소리를 얻는 행위로서의 신체는 음향적이며 뚜렷한 음색을 가진다. 신체의 리듬적 움직임은 춤과도 흡사하며 역동적인 악기의 기능이상을 해낸다(Emer and Romero-Naranjo, 2014).

2. 바디퍼커션의 배경

바디퍼커션이라는 명칭이 역사적으로 발견된 적은 없으나 다른 민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문화적 전통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바디퍼커션의 형태로 진화했다는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일본의 전통 춤인 스트라이프스(Stripes), 이스라엘의 셰킥(SheKe Tak), 아프리카의 검부츠(Gumboots), 스페인의 팔마스(Palmas), 플라멩고(Flamenco), 미국의 햄본(Hambone), 탭(Tap)¹⁾, 발리의 케작(Ketjak), 에티오피아의 암피트(Armpit), 아일랜드의 스텝댄스(step dance)들은 전통적 복장에 움직임이 담긴 춤과 함께 독특한 소리 표현 양식을 지니고 있다(Bulut, 2010, p. 11). 신체로 움직이고 소리 내는 양식은 하나의 문화로 민족을 보여주는 대표성을 가진다.

문화를 담은 개인의 신체는 가족의 생활양식, 민족전통, 시민성, 사회문화를 담고 있는 담지체로 작용한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보는 개인의 신체는 일상의 관습들을 넘어 대규모 권력조직의 연결 그 자체가 된다. 신체는 개인적 욕망을 담지하는 동시에 사회의 구조에 순응해야 하기 때문에 통제의 대상이 된다(Shilling, 2011, p. 130). 개성을 표현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구도 통제된다. 신체가 움직이고 소리를 내기 위해서는 정해진 장소에서 일정한 틀에 맞게 행해질 때 용인된다. 이러한 양상은 근대 학교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는 어른들이 승인하고 제한하는 틀에서 특정한 육체 통제양식과 표현양식을 재생산하는 일에 관여해왔다. 학생에게 신체는 학교라는 생활공간에서 움직이고 관리되며 훈육되어가는 대상이 된다(Shilling, 2011). 제도 속으로 신체가 규율화되면서 신체의 중요성은 축소되며 근본적인 모습이 간과되었다. 개인의 신체는 음악을 하고 싶은 시간이 아닌 규율화된 시간에 묶인 상태에서 학문위주로 진행되었다.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음악교육의 영역에서 감각, 신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기 시작했다. 다섯 가지 인간의 감각을 열두 가지로 확장시킨 슈타이너(R. Steiner, 1861~1925)를 지지하였던 쾨니히(K. König)는 인간의 촉각이 갖는 독자적인 능력은 전달된 감각 내용을 통해 자신과 타인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Moon, 2016에서 재인용). 인간 신체의 근본인 감각에 대한 재탐구는 달크로즈의 유리드믹스, 오르프의 신체표현과 같은 음악교수법에 다양한 방식으로 응용되었다.

현대의 음악교육에서 신체를 활용한 음악교수법은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된다. 프로젝트 학습방법, 인지적 도제이론, 스캐폴딩과 같은 교수-학습 방식은 교사와 학생의 참여를 기반으로 신체의 직접 실천에서 얻는 실제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더

1) 탭은 북미 지역에서 행해지던 전통 댄스이다.

나아가 학생들의 음악 수업을 돕고 음악적 동기를 유발시키기 위하여 게임이나, VR, AR과 같은 보다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추세이다. 신체를 사용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하는 교수방식으로 바디퍼커션은 해외에서 좋은 교육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매년 바디뮤직국제페스티벌(International Body Music Festival)²⁾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조직되어 전세계의 바디퍼커션니스트들이 참여하여 연구 및 축제로 발전했고 2010년에는 브라질의 쌍파울로에서 개최되기도 했다.

3. 타악기 방식

타악기는 크게 손과 악기가 직접 닿아 연주하는 핸드퍼커션(hand percussion)과 스틱이나 말렛 등의 도구를 사용하여 타격을 가해 소리를 얻는 스틱 퍼커션(stick percussion)과 말렛 퍼커션(Mallet percussion), 그리고 악기를 직접 손으로 치는 핸드 퍼커션(hand percussion)으로 분류 할 수 있다(Choi & Park, 2001). 타악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치는 즉시 원하는 소리를 바로 얻을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소리를 바로 얻을 수 있는 특성이 다른 악기에 비해 많은 시간의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이는 기본적인 소리를 내는 방식부터 익혀야 하는 관악기나 현악기와는 대조를 이룬다. 하나의 소리의 얻기 위해서 신체를 악기에 적응시키는 기간이 필요한 관악기나 현악기에 비해 적응기간이 짧은 바디퍼커션에서는 이러한 시간적 고려가 필요치 않다. 빠르게 소리를 얻을 수 있는 특성은 타악기가 리듬 악기, 건반을 기반으로 한 교육용 타악기 또는 오르프교육 등의 음악교육의 용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한다.

신체에서 나는 소리를 분류해보면 타악기기가 낼 수 있는 소리와 상응하는 점이 꽤 있다. 타악기를 구조적으로 볼 때 악기의 본체를 둘러싸고 있는 막을 두드려서 소리 내는 막명 악기(membranophone), 막이 필요 없이 악기 본체 자체가 소리를 내는 체명 악기(idiophone)로 나눈다. 신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은 막명 악기와 체명 악기의 소리들을 모두 표현할 수 있다. 가령, 손을 이용하여 손뼉 치기거나(claping), 가슴, 배, 엉덩이, 허벅지들은 몸 자체의 소리를 악기화하는 체명 악기 방식을 취한다. 손가락을 튕기거나(finger snap) 입 공간을 만들어 소리를 내는 행위는 몸을 공명화하는 막명 악기 식의 사용이 된다.

2) 여기에 관련해서는 바디뮤직국제페스티벌 <http://www.internationalbodymusicfestival.com/index.html>을 참고.

4. 바디퍼커션의 이점

몇 가지 측면에서 바디퍼커션은 다른 악기와 차별되는 점을 가지고 있다. 악기를 들고 이동하기 어려운 곳에서 바디퍼커션은 아주 좋은 악기가 된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학습 상황을 연출할 수 있다는 것은 바디퍼커션의 큰 장점이다. 이는 음악을 경험하기 위한 비용 절감 차원의 역할을 할 수 있다(Hervista, 2019, p. 286). 또한 마음껏 소리를 낼 수 없는 제약적 공간에서도 바디퍼커션은 소리를 효율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Filz, 2014, p. 3).

바디퍼커션은 학습 인원의 제약이 거의 없다. 주어진 리듬은 개인이 한 파트가 되어 구현이 가능하지만 기능적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모듬으로 나누어서 연주하게 되면 학습에 효과성을 떨 수 있다(Solomon, 1997). 음악적 주제는 중심 멜로디만을 연주할 수 있으나 그와 함께 뼈대가 되는 리듬, 그리고 부수적 화성을 구성하는 음악적 요소로 나누어서 바디퍼커션으로 표현 가능하고 이렇게 표현하면 앙상블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러한 효과는 바디퍼커션활동이 주어진 음악적 주제를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함께 하는 동료사이에 사회적 친밀감을 상승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Yun, 2020).

<Table 1> Making sounds with body-percussion

Making sounds ³⁾			Body sounds				Object sounds	
			Clapping	Snapping	Rubbing	Clicking	Stamping	Special sound
Body parts	Upper body	Fingers		○				
		Palm	○		○	○		
		Back of hands	○		○			
		Arm	○		○			
		Chest	○		○			
		Belly	○		○			
		Mouth	○			○		○
		Cheeks	○			○		
	Lower body	Thighs	○		○			
		Hips	○					
		Knees	○					
		Soles of feet					○	
		The heel of the foot	○					

3) <Table 1>의 소리 내기의 방식과 영역은 본 연구자가 만들어 낸 것이다.

바디퍼커션활동을 드럼, 타악기활동으로 한정시키면 악곡들의 반주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Filz, 2014). 이때의 음악활동은 악곡을 들으면서 악곡에 리듬을 첨가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5. 주체적 신체

바디퍼커션은 몸의 일부인 손, 발로 자기 신체를 두드리면서 필요한 소리를 생성해 낸다. 이는 소리를 내어주는 감각활동이 도구적 악기에서 신체에서 직접적으로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은 소리 생성 과정 자체를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음악 표현을 위하여 다른 영역들은 악기 혹은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는 악기⁴⁾와 같은 매개체를 필요로 한다. 다른 매개체의 사용은 소리를 내어 줄 수 있는 사용법을 익히는 과정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신체의 본질적 중요성은 매개체를 익히기 위한 부분은 발달을 이루지만 다른 부분은 소외된다. 바디퍼커션은 음악을 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소외된 신체를 음악활동의 주체로 되돌린다. 이것은 이제껏 음악활동을 위해 부분적으로 제한되어 사용되었던 신체에 대한 본질에 접근하면서 몰랐던 감각을 일깨우게 하는 효과를 준다.

바디퍼커션활동을 통해 체험되는 것은 소리와 움직임이다. 오르프 술베르크(Orff-Schulwerk)와 유리드믹스(Eurhythmics)는 이와 관련된 교수법이다. 오르프는 학습하고자 하는 리듬을 학습할 때 신체의 일부를 사용 한다는 점에서 바디퍼커션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런데 오르프 학습을 자세히보면 신체악기는 말리듬-리듬악기-선율악기-음악극으로 이어지는 거대한 과정 중에 하나의 학습 단계로 삽입되어 있다(Wuytack, 2008). 여기서 신체악기는 부분적 리듬의 학습에 한정된다. 유리드믹스는 신체 움직임이 중요한 교육요소가 되기 때문에 움직임을 통한 리듬의 흐름에 초점을 맞춘다(Min et al., 2019). 이들 교수법에 비해 바디퍼커션은 소리에 중심이 맞추어지면서 움직임이 추가된다. 바디퍼커션은 기본적인 소리 내기에서 템포, 다이내믹, 리듬 흐름의 패턴 및 움직임을 직접 신체로 확인하며 이를 통해 자기표현의 세계로 이끈다(Hervista, 2019, p. 289). 소리와 움직임의 주체가 신체이자 악기가 되기 때문에 다른 악기로의 습득 단계 이행 또한 없다. 따라서 소리를 기본으로 한 움직임의 조합은 바디퍼커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이러한 점은 음악수업에 활용도를 높이는 요인이 된다.

신체 활동에서는 움직임을 통해 리듬감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긴다. 특정된

4) 여기서의 사물은 음악 수업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공간에서 움직임의 크기, 높낮이를 시간의 흐름에 의해 근육이 인지하도록 하는 활동은 지각운동적인 요인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교육적 효과 얻기 위함이다(Kim & Oh, 2000, p. 231). 신체활동에서 움직임은 신체의 운동으로 인식된다. 바디퍼커션 활동에서는 신체 운동시작 시에 소리와 움직임은 하나로 연결된다. 달리고, 허공에 팔 다리를 올렸다 몸의 다른 부분에 닿는 동작 속에 몸에서 나는 소리를 인식함과 동시에 타인의 소리를 들으며 기능하게 되는 신체는 특정된 공간에서 근육운동으로 비가시적인 시간적 흐름을 가시화 시키며 소리로써 나타나는 정서적 감각을 확장하게 된다(Kim & Oh, 2000). 자기 신체에 움직임을 갖는 과정에서 음악은 시간적 리듬과 소리로 체험된다. 신체는 모든 음악 요소에 대한 표현이 가능하며, 신체로 음악을 표현하는 활동이 실제 음악을 하는데 도움을 준다(Hyun, 2003).

신체가 약기화되면서 얻을 수 있는 음악교육적 요소는 리듬지각력, 동작 소리 경험, 패턴 인지, 강약과 같은 요소들이다. 리듬의 시간적 속도를 눈으로 보는 것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리듬에 대한 구체적인 지각력이 생긴다(Suh & Lee, 2014). 동작에 의한 소리 경험은 기존 학습자의 리듬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고 음악적 표현능력을 향상시킨다. 소리를 내기 위해 움직이는 몸동작에서 리드미컬한 패턴의 발생을 느끼게 된다. 약기화된 신체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발생하는 몸소리의 리듬진행을 만들며 소리와 움직임의 결합을 패턴화한다. 이를 경험하는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리드미컬하고 유연한 동작으로 이행시킨다(Hervista, 2019, pp. 286, 289). 직접 체험과 상호관찰을 통하여 신체의 동작(움직임)-소리는 좋은 음악적 요소로 강화된다.

댄서나 무용수가 음악과 함께 리듬을 익히는 것보다 이와 관련이 있다. 몸의 움직임을 기반으로 하는 춤, 무용, 연기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활동에서는 신체를 움직이면서 발생하는 리듬에 대한 인지 과정을 기본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Jung & Hwang, 2011). 신체의 동작에 의해 발생된 소리는 박자와 리듬을 형성하게 되며, 댄서는 움직임에 이러한 사항들을 학습한다. 각 동작들은 뇌를 통해 근육에 전달되는 신경신호를 시간 흐름에 맞게 움직이게 됨으로써 음악에 맞는 움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순발력, 유연성, 공간, 템포 활용, 집중력을 요구하는 신경조직과 근육을 발달시킨다(Hervista, 2019, p. 287). 볼트(Bulut, 2010)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동작을 통해 형성된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면서 소리를 만드는 움직임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p.10).

지속적인 박자를 유지하게 될 때 재미를 느끼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가지게 된다. 지속적인 박자를 유지함으로써 포괄적인 운동의 질서가 생기게 되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익해진다(Yun, 2020). 바디퍼커션을 통해 이러한 신체 감각들을 탐구하게 될 때 리듬 청음 감각 능력과 신체 리듬 감각 능력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6. 바디퍼커션의 활용 영역들

신체로 소리를 내는 바디퍼커션은 의학을 비롯하여 교육, 댄스, 연극과 같은 영역에서도 활용되고 있다. 의학에서 환자의 환부에 피아노 건반에 의사가 손가락을 튕겨서 얻어내는 반작용을 이용하여 환자의 호흡기와 순환기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체크할 수 있다(Harris, 2016, p. 39). 환자가 자기 혹은 타인의 두드리며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행위는 치료적 기능의 운동으로 집중력 향상 상지와 하지의 사용능력, 주의력, 기억력이 향상된다. 이러한 기능적 이점은 우울증, 인지 장애, 과잉 행동, 파킨슨 병 및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사람들의 치료에도 유용하게 사용된다(Romero-Naranjo, 2014, p. 534).

교육의 영역에서 교사가 바디퍼커션을 활용할 때 경험치 있는 학생 식별-모듬 구성-제재곡 감상 및 교사 시범-학생 모방-신체 활용 정도-음 및 리듬 식별-부분 예제 제시-학생 모방의 단계로 이동할 때 좋은 학습이 된다(Hervista, 2019, p. 287). 미국의 교실수업에서는 이미 드럼 써클(drum circles)이나 리듬 모듬(rhythm groups)과 같은 수업에서 악기 수업을 위한 기초로 활용되고 있다(Filz, 2014). 바디퍼커션은 음악 학습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으나 움직임을 얻는 과정에서 다리, 팔, 허리 등의 응용 동작이 생성되기 때문에 댄스나 무용 학습에서 실질적으로 많이 응용되고 있다(Hervista, 2019, p. 287). 무용 영역에서 바디퍼커션을 활용하면 학습 분위기가 적극적으로 전환되며, 흥미와 능력 향상, 성취감 향상에 유의미하게 기여도를 보이기도 한다(Yun, 2020). 다양한 유형의 소리를 얻는 행위으로써의 신체는 시각적, 청각적인, 육체적인 활동이 되기 때문에 바디퍼커션은 치료적, 교훈적, 사회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III. 음악수업 활용의 실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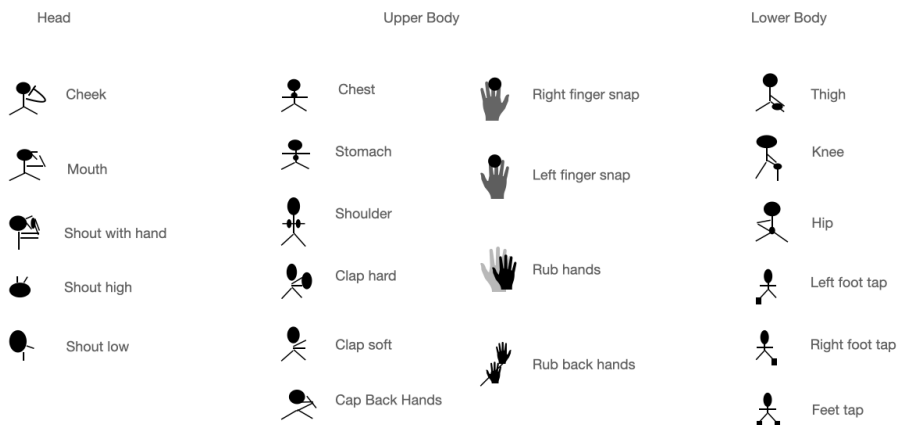
허비스타(Hervista, 2019, p. 288)는 바디퍼커션을 수업에서 활용할 때 다음 네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사용할 신체 악기의 가지 수를 약정하는 것이다. 신체의 부위를 타악기화하면 소리가 날 수 있는 범위는 무수히 만들어 낼 수 있다. 따라서 수업에서 의도하는 바에 따라 신체 부위로 정해지는 악기의 수를 팔(손, 팔꿈치와 손목 사이, 어깨와 팔꿈치 사이), 다리(허벅지 앞쪽, 뒤쪽, 무릎, 종아리 뒤쪽, 옆쪽)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 둘째, 신체 악기로 만드는 소리 조합의 복잡성에 유의해야 한다. 신체 리듬을 너무 단순하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으나 반대로 너무 어렵게

만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 셋째, 연결되는 음악과 연결할 때 어울리는 소리조합으로 제시해야 한다. 제재곡과 연결해서 사용할 때, 곡의 저음은 신체에서 저음과 유사한 소리구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넷째, 소리와 움직임을 고려하고 리듬 패턴의 빠르기를 고려해야 한다. 얼굴-손-팔-가슴-다리로 이어지는 패턴의 리듬을 빠른 템포에서 모두 구사하도록 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음악수업에 활용하고자 한다.

1. 신체 소리 기호

일반적으로 바디퍼커션활동을 할 때 기호의 사용 대신 시각적 모방이나 구음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신체를 두드려서 낼 수 있는 소리는 많지만 수업의 영역에서 표현 가능한 테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표현 가능 영역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수업 상황에서는 기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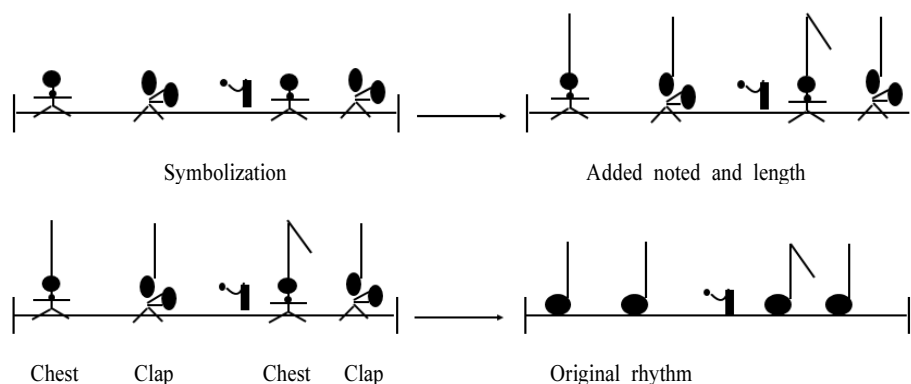
악보 구성에서 각각의 신체 부위에 따라 보표로 묶어 악보를 제시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표현되는 정보의 크기가 커지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본 연구자는 아래와 같이 신체 소리를 기호화하여 만들어 제시하였다.



[Figure 1] Sound symbols for body-percussion

바디퍼커션에서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을 머리(입, 뺨)와 상체(가슴, 배, 손, 손등, 어깨), 그 다음 하체(허벅지, 무릎, 엉덩이, 발)로 나눈다(Filz, 2014; Yun, 2020). 소리 기호는 신체가 해당 소리의 동작하는 모습의 특징을 단순하게 형상화하여 구성

하였다. 신체의 형태를 닮은 악보 기호는 악보의 해독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호기심을 유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 각 기호에 길이를 표현한 음표를 붙이면 바디퍼커션 음표가 완성된다.



[Figure 2] Body-percussion music sheet

교사는 기호화된 악보를 사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하고자 하는 바디퍼커션을 동작으로 시범하고 학생들에게 따라하게 한 다음 낸 소리가 형상화된 악보를 보여 준다. 이러한 과정은 악보 동작-모방에서 소리기호-해석으로 자연스럽게 이동시킬 수 있다.

2. 도입 단계 활용: 멜로디 표현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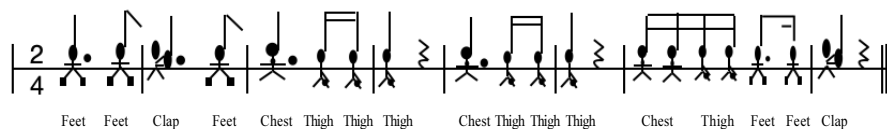
수업의 도입 단계는 세워놓은 학습목표를 이루기 위한 출발점이다. 이 단계에서는 주로 교사가 학습목표 및 학습활동을 안내하기, 간단한 질문하기, 제재곡 한번 노래 불러보기, 분위기 혹은 느낌 이야기하기, 기본리듬 박수로 쳐보기 등이 동원된다(Park, 2017; Yang, 2020). 수업의 시작단계에서 목표로 하는 내용이 흥미롭게 제시되지 못했을 때, 이후의 단계들에서 교사들은 지속적으로 수업의 부담을 느끼게 된다(Park & Lee, 2016). 이런 경우 도입 부분에서 음악을 듣고 멜로디의 일부분을 신체로 표현해 보는 도입 방식을 사용한다. 이때의 중점은 음악적 특징이 신체에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것이다.

신체의 각 부분을 이용해 곡의 멜로디를 표현함으로써 학습할 곡과 친숙해짐과 동시에 신체는 워밍업이 된다. 이는 자칫 어수선하게 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진행될 수업의 제재곡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Example 1. Brahms: Hungarian Dance No.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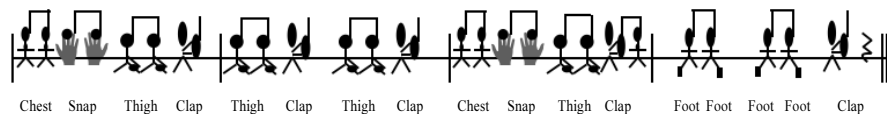
<Example 2. Changed body-percussion>



<Example 3. Grieg: In the hall of mountain king>



<Example 4. Changed body-percussion>



[Figure 3] Changed melodies body-percussion

위의 예시는 의자에 앉은 상태를 가정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양 발, 허벅지, 손뼉, 가슴, 손가락을 이용하여 만들었다. <헝가리 무곡 5번>의 양발-손뼉, 가슴-허벅지와 <산왕의 궁전에서>의 가슴-손가락-손뼉, 허벅지-손뼉, 발-손뼉은 하나의 바디퍼커션에서 짝을 이루는 패턴으로 어렵지 않게 연결하여 소리내기 위함이다.

3. 표현력 학습

1) 강약 내기

박의 흐름을 박자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리듬 흐름의 강약을 규칙적으로 나열하여야 한다(Choi, 2008). 강과 약의 세기 구별은 수업을 진행할 장소의 공간, 공간을 차지하는 사람의 양과 울림에 따라 다르다. 같은 세기의 소리도 공간의 구조에 따라 더

크게, 더 작게 표현될 수 있다.

신체에도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과 작은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점프, 발구르기, 허벅지 두드리기들은 비교적 강 개념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반대로 손가락 튕기기, 손 비비기, 손끝으로 치는 박수들은 약 개념을 표현하기에 적합하다. 신체 소리 크기의 범위를 고려하여 교사는 낼 수 있는 소리 크기를 확인하도록 강한 소리와 작은 소리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신체로 강과 약의 구분이 확정되면 ‘갑자기 세계-갑자기 여리게’, ‘점점 세계-점점 느리게’, ‘점점 빠르게-점점 느리게’와 같은 활동으로 이동한다.

<Table 2> Learning loud and soft sound(forte and piano sound)

Concepts	Leaning	Activities
Loud and soft	• Body parts and movements for loud sound	• Jump, stomp, clap, thigh, hip
	• Body parts and movements for soft sound	• Finger, finger flick, fingertip clap, hand back, rubbing
A sudden dynamic change	• Keep the sound going and suddenly make a loud sound. • Keep the sound going, and suddenly make a soft sound	• Walk with your feet clenched, and then jump. • Small voice (without language) -Loud voice
Increasing and decreasing volume of the sound	• Keep the volume going. Make it louder or softer gradually	• Fingertip sound-finger flick-back of hand sound-clap (reverse order) • Forefoot sound-hind paw sound-generator sound (reverse order) • Clap your hands-Clap your arms-Clap your shoulders-Clap your breasts-Clap your hips (reverse order) • Thigh stroke-foot roll (reverse order)
Gradually fast gradually slow	• Sounds easy to make • Sound difficult to make	• Walk fast forward and slow down • Walk back and side to slow down • Create rhythm and slow down

교사는 개념 제시된 활동들을 하면서 어울리는 리듬을 제시할 수 있고 만들어진 리듬을 즉흥적으로 응용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학생들의 신체적 소리 표현 능력 확장을 도모할 수 있다.

4. 추상적 소재 활용

1) 협응 활동: 녹음된 소음, 그림, 영상

이미 구성된 학습 주제라도 학급구성원 모두가 하나의 활동으로 조직하는 것과 협동하여 과제를 완성하는 것은 학생 개인에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음악교과에서 협력적 학습은 학생 간 정서적 관계를 다져주고 사회 정서적 지식을 증진시키며, 관계 회복 및 탄력성을 증가시키는 데 유의미하다(Lim, 2018; Choi, 2018).

일반 악기의 경우 음색이 정해져 있고, 신속한 변형이 어려우며 음역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음과 리듬을 표현하기에 제한이 있는데 바디퍼커션을 사용할 경우 그러한 부분에서 자유롭다. 광범위한 표현적 자유로움은 멜로디 화성의 구조를 넘어서는 추상적인 주제를 표현하기에 좋은 접근성을 가진다. 이것은 수업 주제를 구성하는 교사로 하여금 전통적인 음악학습 형태에서 새로운 주제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한다.

공장에서 들리는 기계 소리, 자동차를 비롯한 도로에서 들리는 소리, 기타 생활 소리들은 일상 소음으로 분류되지만 들어보면 음색적 특성과 나뉘는 패턴을 가지고 있다.

<Example. Music making by noise>



[Figure 4] Abstractive image

교사는 이러한 점을 수업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소음이 담긴 녹음, 영상, 그림과 같은 기초 자료를 선정한 다음 모듬으로 구성된 학생들에게 들려주어 구성원들에 의해 파악된 소리 특성에 대한 토론 후 재현하도록 해본다. 이러한 활동은 추상적 주제를 소리 요소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상상력과 구체화하는 연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또한 학생들은 모듬 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음악적 창작에 의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협동하게 된다.

<Table 3> Sample teaching plan

Process of instruction	Type of learning	Guidelines for teaching and learning		The time required (minutes)	Evaluation	Materials and notes
		Teacher	Students			
Development	Group	- Organize a group of 3-5 people - The prepared noise (recorded, picture, video) is play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group.	- Participate in group. - Hear each noise. - Focus on the emphasized sound	3	-	Recording, painting, and video are selected as materials that can reveal noise well
		- Try to grasp the sound that is being emphasized - Identify fast and slow sounds (tempo) - Focus on the background sound (background) - Let them find a sound with a special tone (characteristic sound) - Focus on the pattern of each sound (rhythm pattern) - Identify the sound that continues and the sound that breaks (connection) - Pitch sounds should be imitated with your mouth. - Induces groups to hear the progress and changes of the sound (sound progress)	- The group members discuss Dynamics, Tempos, background, characteristic tone, rhythm pattern, sound connection, pitch, and sound progress as they see it. - Comprehensive discussion and play the rhythm together with body-percussion.	10	-	
		Guides and advises in groups	Show ensemble body percussion to teachers	5	-	
		Give time to finish	Finish the ensemble	1	-	
		Make a presentation by group	Each groups play the body-percussion	5	-	
		The group shall briefly evaluate the experience of noise, music, and daily life in a single line.	Each groups present	1	-	

멜로디가 없는 음악은 있을 수 있어도 리듬이 없는 음악은 존재하기 어렵다(Park, 2001). 자연 현상에도 리듬을 함유하고 있어 또 하나의 수업재료가 될 수 있다. 교사는 소음대신 빗방울 소리, 숲과 동물, 곤충 소리, 계곡 소리, 바다 소리, 태풍 소리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주제를 변환할 수 있다. 비닐봉지나 종이 등의 간단한 소품을 사용하여 학생들의 표현력을 높일 수 있다.

2) 개인 활동: 자기 성격 표현하기

추상적 주제는 보이지 않는 소음, 자연현상에서 소극, 발랄 등의 성격이 될 수도 있다. 이는 바디퍼커션이 드라마틱한 모션과 소리가 합치되어 나오는 움직임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활동으로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하는 Solomon(1997)과도 맥을 같이한다. 바디퍼커션을 구성하는 동작은 신체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시각화의 방식으로 청각적 소리 정보와 합치되어 시너지를 발휘한다. 따라서 학생의 음악적 느낌을 신체 동작을 더하여 나타내는 과정은 인간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추상적 욕구의 외부적 표현으로 적극적인 자신의 표현 활동이 될 수 있다(Jang, 2008). 학생 개인이 생각하여 표현하고자 하는 추상적 개념은 시간적 흐름 안에서 시각신호와 청각신호로 변환, 나열되기 때문에 리듬화, 주제화된다.

개인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유형에서 학생의 성격 유형별 표현의 예로서 성격/상태/활동내용(동작-소리)를 순서대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교사는 배경 음악으로 메트로놈 4분음표 =50-60, 또는 느린 박자를 가진 음악을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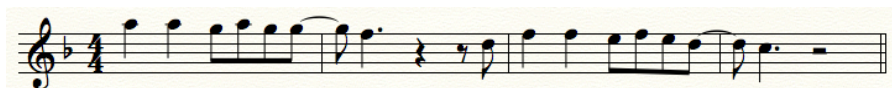
- (1) 정신없지만 자유로움/일어섬/뒹뒹기, 다리들고 사이로 손뼉, 양팔 자유롭게 흔들기
- (2) 정직/일어섬/느린 발구르기, 단조로운 가슴-손뼉 연결
- (3) 낮가리지만 친하면 활발/일어섬/가슴-머리-손뼉을 번갈아가며 천천히 치다가 급격하게 뛰면서 다리사이로 손뼉
- (4) 급함/일어섬/빠르게 발구르기다 어깨치기
- (5) 폭주기관차/일어섬/팔을 작은 소리도 치다가 다리로 내려가면서 크게 빠르게 치기
- (6) 발랄/일어섬/손으로 점프하면서 발 옆꿈치-팔 굽혀 흔들며 손뼉 치기
- (7) 생각이 많다/일어섬/느리게 박자 맞춰 발구르다가 박자에 안 맞게 허벅지 치기
- (8) 단순/일어섬/한손으로 허벅지치다가 천천히 발구르기-손뼉치기
- (9) 어디로 튈지 모름/일어섬/배-허리 번갈아 박자 맞춰 손으로 치기-갑자기 달린다-발 한번 구르며 서기
- (10) 게으르지만 놀 땀 활발/일어섬/느리게 발구르기-허벅지 빠르게 치다가 손뼉-손가락 튕기기
- (11) 무기력하고 변화를 싫어함/일어섬/뒷목 손바닥으로 느리게 치기-어깨-허벅지-발구르며 반복
- (12) 조용한데 할 소리 한다/의자앞음/허벅지 토닥이다가 갑자 발 세게 구름
- (13) 웃음 많음/의자앞음/얼굴 오른손으로 양손 손뼉 여러 번-왼쪽으로 여러 번치기

소리에 신체 표현이 더해짐으로써 학생들은 추상적 의미를 가진 단어를 구체적으로 구현해 내는 연결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5. 대중음악 반주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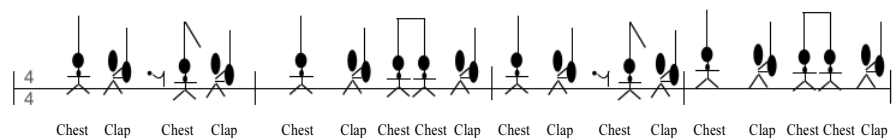
대중음악의 체험은 삶과 좀 더 가까운 맥락에서 음악을 이해하고 생활화 하는 태도에 접근할 수 있다(Yang et al., 2009). 전술한 바와 같이 바디퍼커션은 몸을 타악기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드럼과 같은 타악기로 리듬을 표현하기 좋은 장점이 있다. 동작을 배제하고 타악기적 소리로만 활용하면 대중음악에서 나오는 록 비트, 힙합비트와 같은 비트들을 표현할 수 있다.

<Example 1. 붉은 노을 A flaming sunset>



I - love you- this world is only you-

<accompani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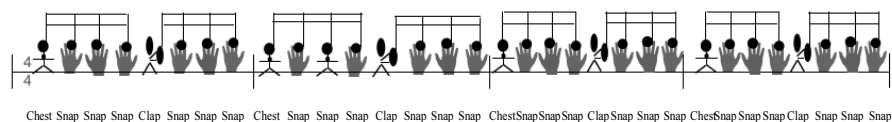


<Example 2. 범내려 온다 A tiger is coming>



A tiger is coming a tiger is coming A beast is coming through the deep valley in the pine woods

<accompaniment>



[Figure 5] Body-percussion accompaniment for popular music

<Example 3. Bibbidi Bobbidi B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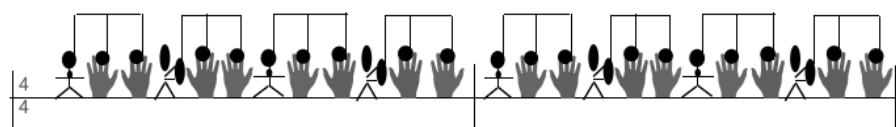


Salaga doo la mechicka boo-la bibbidi bobbidi bo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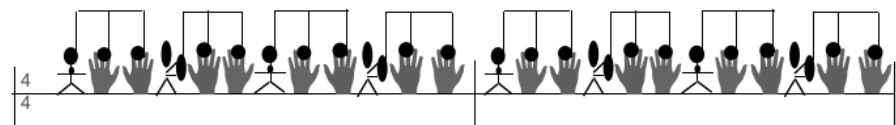


Put'em together and what have you got bibbidi bobbidi boo

<accompaniment>



Chest Snap Snap Clap Snap Snap Chest Snap Snap Clap Snap Snap Chest Snap Snap Clap Snap Snap



Chest Snap Snap Clap Snap Snap Chest Snap Snap Clap Snap Snap Chest Snap Snap Clap Snap Snap Chest Snap Snap Clap Snap Snap

[Figure 5] Continued

방과후 밴드, 동아리활동과 같은 공간, 또는 대중음악 수업을 하려고 할 때 학생 모두가 실제악기를 다루어보기 어려운 실제적 한계가 있다. 비록 간접적 체험이기는 하나 제약적 환경에서 바디퍼커션을 사용한 대중음악 반주는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대중음악에 대한 학습 수준이 다른 학생들에게 리듬 반주를 하게 되면 일률적 감상보다 기초적인 이해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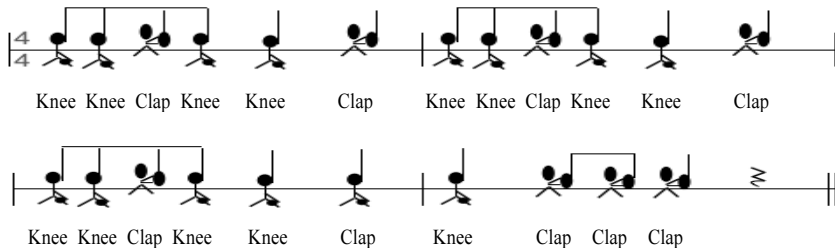
6. 바디퍼커션 론도

론도(rondo)는 하나의 주제가 다른 곡 중간에 계속되어 나타나는 작곡 기법인데 신체 소리와 동작의 표현 함께하는 이 형식을 바디퍼커션에 활용하면 유의미한 음악 학습을 이끌어 낼 수 있다(Solomon,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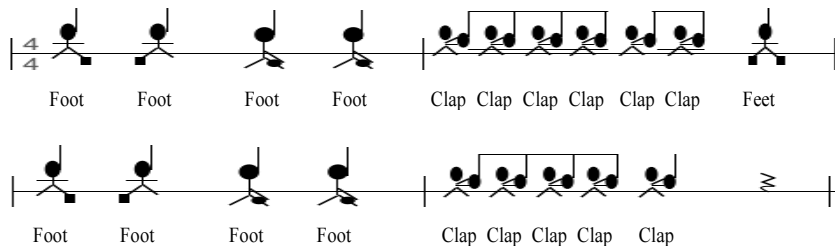
교사는 학생집단을 모둠으로 구성한 다음 4마디의 간단한 리듬을 만들도록 주문한 후 리듬과 리듬을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구를 준비하여 제시한다. 학생들은 자기모듬에서 구성된 리듬을 차례로 연주한 후에 교사가 제시한 연결구를 함께 연주하게 된다.

Examp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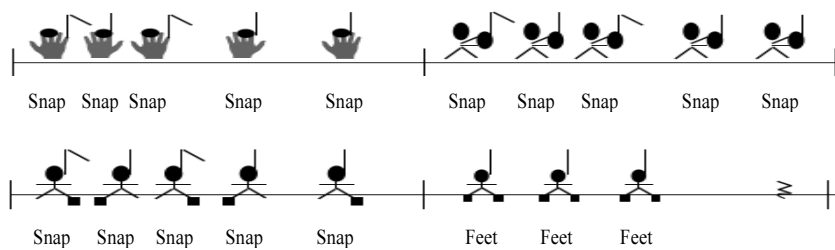
A teacher's sample



B group body-percussion



C group body-percussion



[Figure 6] Body-percussion rondo

예시와 같이 리듬이 만들어지면 교사는 연습 시간을 주어 각 모듬별이 만들어 낸 바디퍼커션을 박자에 맞게 다른 모듬 앞에서 선보이도록 한다. 각 모듬의 시범이 완료되면 순서를 정한다.

교사가 제시한 연결구는 모든 모듬이 다함께 동작, 소리 내게 되며 시작(intro)과 각 모듬의 중간 그리고 마침(outro)에 삽입된다.

교사가 제시한 연결구인 A로 시작하면, B모듬은 곧바로 자신들이 만든 바디퍼커션을 한다. C모듬과 교사는 집중하여 보고 있다가 A모듬이 마치는 대로 연결구(A)로

연결한다. 연결구가 끝나면 C모듬이 같은 방식으로 바디퍼커션을 하게 되고 B모듬과 교사는 집중하여 본다. 마지막은 교사 연결구로 함께 마무리하게 되는데 이런 형태는 A-B-A-C-B-A의 구조를 갖는다. C의 교사 연결구를 모두 원활히 소리, 표현할 수 있다면 네 개 이상의 모듬도 무리 없이 연결하여 지도가 가능하다.⁵⁾ 지도과정에서 교사는 일정한 빠르기를 제시하고 유지하면서 학생들이 리듬을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또한 모듬을 돌아다니며 이해하기 어려운 리듬, 동작을 하기 쉽게 수정해준다. 단순한 리듬에서도 학습효과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모듬 리듬지도에서 학생들이 만든 바디퍼커션의 원래 의도를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리듬을 자연스럽게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따라서 리듬 지각성, 협동 능력의 향상을 준다.

7. 그 밖의 소리를 활용한 창작

<Figure 1>에서 나열한 바디퍼커션 소리기호의 분류 외에도 몸이 다채로운 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여러 가지 창의적인 소리를 고안해 낼 수 있다.

기호외의 다채로운 바디커션 소리들을 신체부위/활동/방식 순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불/불치기(한손/양손)/입을 열어 공간을 만들고 손을 모아 불을 친다
- 입/입치기/입을 열어 공간을 만들고 손을 모아 입을 친다
- 입/입 공기 넣기/입을 열어 공간을 만들고 양손으로 공간을 만들어 손뼉을 친다
- 입/휘파람/입으로 여러 가지 음정을 만들어 낼 수 있다
- 입/혀차기/혀를 차면서 딱딱, 똑똑 소리를 낸다
- 목/목치기(한손/양손)/한 손(양 손)으로 목 옆 부분을 친다
- 손가락/손가락 박수(두 개 세 개/ 네 개)/손가락을 교차시켜 박수친다
- 손팔어깨/손바닥 팔뚝/손+팔뚝 비비기, 치기 손+어깨 비비기기, 치기/한 손(양 손)으로 다른 쪽 팔을 비빈다. 한 손으로 다른 쪽 팔을 친다. 한 손으로 다른 쪽 어깨를 비빈다.한손으로 다른 쪽 어깨를 친다.
- 손 무릎/손 무릎/손+무릎 치기/한 손 또는 양손을 무릎 사이로 넣어 흔들어 준다.
- 가슴배/가슴, 배/가슴, 배 비비기/한 손 또는 양 손으로 배, 가슴을 비빈다.
- 무릎/양무릎부딪치기/양 무릎을 가운데로 모으며 부딪친다.

5) 본 연구자가 한 학기동안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본 결과 모듬의 수가 많으면 더 집중하는 양상을 보였다.

- 발/발바닥/발바닥 비비기/한 발 또는 양 발로 바닥을 비빈다
- 발/발바닥/앉은 상태에서 양 발을 들어서 모아 마주치게 한다

위에서 나타나는 미묘한 소리들을 모두 일일이 기호화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 소리들을 교실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사용하면 보다 유용한 소리 자원이 된다. 교사는 표기하기 현장 상황에 따라 애매한 소리들을 즉흥적으로 학생들에게 소개하거나 즉석에서 활용하여 창작을 유도할 수 있다.

IV. 결론

본 연구는 음악 표현의 주체인 신체를 기반으로 한 바디퍼커션 기법을 음악수업에 적용하여 학생들에게 좀 더 흥미를 끌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고자하는 의도로 시작되었다. 바디퍼커션은 신체로 소리를 내는 활동과 움직임을 통한 표현활동이 동시에 가능하여 동작-소리 경험, 지속적인 박자 흐름에서 패턴 지각 및 인지능력, 신체 감각 능력, 표현 능력에 영향을 신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진 바디퍼커션은 음악수업에서 다음과 같이 활용될 수 있다. 첫째, 도입단계에서 제재곡의 중심 멜로디를 바디퍼커션으로 표현하면 음악의 특징을 신체에 드러나게 함과 동시에 전개로의 연결에 용이하다. 둘째, 신체에서 작게 또는 크게 소리 낼 수 있는 부분들을 활용하여 강약의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손비비기, 손가락 튕기기 등의 약 개념으로 발구르기, 걷기, 허벅지 치기, 점프 등은 강 개념과 등치가 가능하고 이를 변용하여 갑자기 세게-갑자기 여리게, 점점 세게-점점 여리게, 점점 빠르게-점점 느리게와 같은 활동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셋째, 소음이나 자연의 소리에서 성격과 같은 추상적인 주제도 광범위하게 표현할 수 있다. 넷째, 바디퍼커션을 반주 용도에 한정하여 대중음악을 반주하면 제약적 환경에서 대안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섯째, 바디퍼커션에 론도형식을 적용하면 리듬 지각성, 박 적응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기호화하기 애매한 소리들을 이용하여 교실 현장 상황에 따라 소개하거나 즉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바디퍼커션은 음악적으로나 음악 외적으로 많은 활용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다양한 관점에서 교수방법을 제안하고 실험하면서 음악수업을 위한 바디퍼커션활용법이 개발되고 체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 Bulut, M. Ö. (2010). *Body Music and Socio-Cultural Change*. Ankara: Müzik Egitimi Yayinlari, ss. 83-90.
- Choi, K. H., & Park, C. T. (2001). *Percussion encyclopedia*. Gyeonggi: Sungyeon.
- Choi, M. Y. (2008). Considerations on body movements in elementary music educa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5, 177-202.
- _____ (2018). The effect of elementary school music subject related SEL program applied by structure-centered cooperative learn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7(2), 211-235.
- Emer, V., & Romero-Naranjo, F. J. (2014). The us of body percussion in contemporary choral music. *Proc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52, 53-57.
- Filz, R. (2014). *Body percussion sounds and rhythms: A comprehensive training system*. Van Nuys, CA: Alfred Music.
- Hervista, G. A. (2019). The learning through body percussion. *Advances in Social Science, Education and Humanities Research*, 419, 286-289.
- Hyun, K. S. (2003). Musical movement games in the classroom. *Music and Korea*, 26, 469-487.
- International Body Music Festival. (2013). Highlights from the 6th IBMF San Francisco Bay Area, performance video(trailer). Retrived October. 1. 2018. from <http://www.internationalbodymusicfestival.com/index.html>
- Jang, Y. W. (2008). *The effects physical expression of movement has on teaching and learning process of music*. Master thesis, Chonnam University.
- Jung, G. U., & Hwang, M. J. (2011). Study of expression of movements of rhythm exercise in elementary school education: From developmental theory viewpoint.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hythmic Exercises*, 4(2), 19-29.
- Kim, M. R. (2018). *Research on teaching guide plans with LT coordination learning model applied to physical expression of body percussion*. Master thesis, Chung-Ang University.
- Kim, M. S. (2003). The usage of game in music instruction.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24, 1-19.
- Kim, S. J., & Oh, S. B. (2000). A study on the rhythm in music education and movement educa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5(1),

227-234.

- Lim, H. S. (2018). Understanding the effect of self-regulated learning on music performance anxiety through collaborative learning.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8(3), 153-172.
- Min, K. H., Kim, S. Y., Kim, Y. H., Bang, K. J., Seung, Y. H., Yang, J. M., Lee, Y. K., Rim, M. K., Jang, K. B., Cho, S. I., Ju, D. C., & Hyun, K. S. (2019). *Introduction to music education*. Seoul: Hakjisa.
- Ministry of Education (2015). *Music curriculum*. No. 2015-74. [Supplementary 12]
- Moon, Y. S. (2016). *On study of K. König's sensory educati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Research Memory, 2014S1A5B5A07041945.
- Park, E. H. (2007). Die Verwendung der Spiele als Lernmittel im Musikunterricht.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2, 1-29.
- Park, J. M. (2017a). A study on teaching methods for making story music using Korean children song: Focused on the improvisation activities.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2(1), 61-80.
- _____ (2017b). Developing a music copyright education program for elementary school children: Focusing on role-play class model. *Korean Journal of Arts Education*, 15(1), 35-50.
- Park, S. Y., & Lee, K. S. (2016). Male teacher's difficulty in teaching expressive activity(dance) class by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the Study of Physical Education*, 21(2), 55-67.
- Park, Y. E. (2001). *A study on the teaching method of rhythm creation through body instruments*. Master thesis, T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Romero-Naranjo, F. J. (2014). Body percussion and memory for elderly people through the BAPNE method. *Procdia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132, 533-537.
- Seo, D. J. (2018). *Reinterpretation of previous song using human beatbox*. Master thesis, Sangmyung University.
- Shilling, C. (2011). *The body and social theory*. Trans Lim, I. S. Paju: Nanam.
- Solomon, J. (1997). *The body rondo book: 12 body percussion rondos, elementary to advanced*. Memphis, TN: Memphis Musicraft Publications.
- Suh, Y. M., & Lee, S. H. (2014). The effects of an early childhood physical rhythm education program on rhythm perception and rhythm express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5(6), 25-46.

- Wuytack, Jos. (2008). *Thechnique of Orff-Schulwerk pedagogy*. Trans Kim, Y. J. Paju: Eumaksekye.
- Yang, E. J., Kang, M. S., & Jung, S. I. (2009). The development of a pop music ensemble program for the club activities and after-school activities in the secondary school. *Korean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37, 113-138.
- Yang, S. Y. (2020a). Learning-centered courses planning based on backward design in elementary music curriculum. *Global Creative Leader: Education & Learning*, 10(2), 247-266.
- _____ (2020b). Exploration of music differentiated instructions through development of chord instruction cases for upper elementary school graders. *Journal of Future Music Education*, 5(1), 89-109.
- Yun, S. H. (2020). *The influence of dance class using body percussion on the fun of dance*. Master thesis, Chuncheo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